

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 규제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평가

□ 홍콩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 배터리를 흑연 등에 대해 수출허가제 도입* 등에 나선 것은 **한국 등 특정국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최근 미국·유럽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대응**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
* 고순도 인조 흑연제품 등 수출시 최종 사용자, 용도 등에 대한 신고후 허가를 득해야 수출 가능

○ 최근 미국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(10.17일) 및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 및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으로 **글로벌 공급망(한국 및 일본의 배터리) 의존도가 큰 미국 및 유럽 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고성 의미**라는 견해

□ 시장에서는 흑연 수출을 직접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수출 규제라기 보다는 향후 미국 및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**견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미리 마련**한 것으로 해석

○ 최근 국제 흑연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약간 과잉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중국내 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금지 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

— 중국 당국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흑연 민간거래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(<참고> 중국 흑연협회장 인터뷰 내용 참조)

○ 국내기업들은 도입지연 등에 대비하여 발주물량 확대 등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간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(LG에너지솔루션)

□ 한편 중국의 발표를 계기로 향후 공급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**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요인**으로 작용할 수 있고, **물가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가능성

- 한국 및 일본 관련 기업들은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 (흑연의 경우 남아공, 탄자니아 등으로 수입선 변경 추진 등)을 더욱 서두르고 있으나 단기간내에 중국 수입분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언
- 일부에서는 중국의 흑연 수출규제 강화가 실행될 경우에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흑연가격이 반등*할 수 있으며 배터리, 전기자동차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

* 지난 금요일 중국 흑연그룹의 홍콩 상장주식은 10.7% 상승하였으며, 호주 Syrah Resources사의 주가도 16.48% 상승

<참고>

중국 흑연협회장 인터뷰 내용(한구시보, 10.20일)

- **(3고 인조 흑연 규제에 대한 이유)** 이번 신규 규제되는 3고 흑연은 국제적으로 탄도미사일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고온, 고속 충격에 강해 통상 금속 재료가 감당할 수 없는 항공우주 산업에도 활용 가능
 - 중국 상무부가 20일 오전 발표한 '국가안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출규제를 조정한다'며 '3고' 흑연소재 수출규제를 보류한 이유를 잘 설명
- **(천연 인상흑연 등 규제 이유)**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천연 인상 흑연 매장량이 가장 많고 품질도 우수하나 이는 중국의 희토류와 유사하여 중국의 희토류 경험과 같이 무분별한 발굴로 가공이나 초벌 가공 없이 저가로 수출해서는 안됨
 -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흑연 광물을 거의 발굴하지 않고 있음.
 - 이번 중국의 천연 인상 흑연의 규제 조치는 동 자원은 특수한 지질 조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매우 귀중하고 재생할 수 없으므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이며 이는 중국 상무부가 말하는 '국익 수호'의 의미임
- **(규제 국가 및 향후 방침)** 상무부는 정책 발표시 중국의 정상적인 수출 통제 조정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출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함
 - 따라서 해외에서 민간 경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음